

原初的 立場과 定言命法

金 泳 楨

(서울大學校 哲學科)

존 롤즈는 『정의론』에서 가설적인 사회계약론의 한 세련된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정의의 원리들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분명하고 자세한 묘사를 시도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의 인간들을 ‘원초적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올바른 정의의 원리들이란 정확히 이 가설적인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인간들에 의해 선택된 원리들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정의의 두 원리들을 롤즈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첫째 : 개개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의 자유를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1)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짐이 합당하고 또 (2)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직위나 직책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용납되어야 한다.”¹⁾

또 롤즈는 자신의 공평함(fairness)으로서의 정의 이론이 칸트적이라고 주장한다.

“정의론은 칸트의 목적 왕국의 개념, 자율성과 정언 명법의 개념에 자연스러운 철학적 해석을 가 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칸트학설의 기본 구조가 그 형이상학적인 배경으로부터 격리되어 보다 선명히 나타날 수가 있고 반론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게 제시될 수 있다.”²⁾

필자가 이 논문에서 하려는 작업은 롤즈의 이론이 하나의 독립적 이론으로서 합당한 이론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롤즈의 공평함으로서의 정의이론이 어떤 점에서 칸트적인가 그리고 롤즈의 이론을 순수의 칸트적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가 하는 것을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필자는 칸트나 롤즈 모두 의무론적 입장에서 있 기는 하지만, 정의론에서 제시된 롤즈의 구성주의가 『도덕 형이상학 원론』과 『실천이성 비판』에서 보여진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와는 중요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논변할 것이다. 그러면 우선 롤즈의 정의론에 나타난 구성주의부터 살펴보자. 롤즈의 구성주의는 질서 정연한 사회, 도덕적 인간, 그리고 원초적 입장이라는 세가지 모형 개념에 기초하고

1)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 68.

2) *Ibid.*, p. 264.

있다.

1. 롤즈의 구성주의와 객관성

롤즈는 “도덕이론에서의 칸트적 구성주의”³⁾라는 논문에서, 칸트의 비판적 도덕이론과 자신의 공평함으로서의 정의이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의론』에서의 불충분한 설명을 보충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자신의 정의론이 칸트적 구성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이 강의들에서 나는 구성주의적 도덕 개념 혹은 구성주의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말해 칸트적인 구성주의적 도덕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⁴⁾

“칸트적 형태의 구성주의를 다른 형태들의 구성주의와 구별짓게 해 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다: 칸트적 구성주의는 합리적인 구성 과정 속의 요소로서 특정한 인간 개념을 명시하고, 그것의 결과가 정의의 제일 원리들의 내용을 결정한다.”⁵⁾

롤즈의 정의론은 ‘민주사회의 정의 원리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정의의 원리들은 구성의 절차에 의해 인간의 특정한 개념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구성주의는 인간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의 원리들과 연결되느냐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결과적으로 롤즈의 구성주의는 ‘도덕적 사실들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라는 구성주의적인 객관성 개념을 산출한다.

“정의의 개념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우리보다 선행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에 대해서 그 개념이 참이라는 점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갈망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그 개념이 일치한다는 점이며, 또 우리의 공공 생활에 구현된 역사와 전통이 주어졌을 때 그 개념이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점이다. 도덕의 객관성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히 구성된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의의 원리들을 구성하는 절차를 떠나서는 어떤 도덕적 사실도 있을 수 없다.”⁶⁾

인간의 개념과 정의의 원리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롤즈의 구성주의는 앞서 밝힌대로 세 가지 기본모형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평함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두 가지 기본적인 모형 개념들은 질서정연한 사회와 도덕적 인간이라는 모형개념이다. 이 개념들의 일반적인 목적은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우리 자신들에 대한 우리의 개념의 본질적 측면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사회에 대해 갖는 관계의 본질적인 측면을 추출해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는 정의에 관한 공적인 개념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

3) *Journal of Philosophy* 77, 1980, pp.515-572.

4)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p.515.

5) *Ibid.*, p.516.

6) *Ibid.*, p.519.

회이다. 즉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옳음과 정의에 관한 동일한 첫째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는 사회이다. 그리고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들인 도덕적 인간들이다.

세번째 개념인 원초적 입장은 매개적 모형개념이다. 그것의 역할은 도덕적 인간이라는 모형개념과 잘 정돈된 사회의 구성원들인 시민들의 관계를 특성짓는 정의의 원리들을 연결시키는 데 있다. 이 역할은 도덕적 인간이라고 간주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 속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위해 정의의 첫번째 원리들을 이상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모형화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원초적 입장 속의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계약들과 당사자들이 묘사되는 방식은 그러한 사회에서 이해되어진 것으로서의 도덕적 인간들의 자유와 평등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롤즈의 구성주의의 기본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동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공평성은 동의된 정의의 원리들로 전이된다. 원초적 입장은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들을 서로 서로에 대해서 공평하게 자리잡게 하므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어떠한 정의의 개념이라도 공평하다. 그러므로 ‘공평함으로서의 정의’라고 이름붙여진 것이다.”⁷⁾ 따라서 롤즈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은 순수한 절차적 정의만을 구체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원초적 입장에 처해있는 당사자들이 그들에게 제시되는 여러가지 개념들의 목록 중에서 어떤 원리들을 선택하더라도 그 원리들은 정의롭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무엇이 정의롭고 공평한지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미리 주어져 있고 절차란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를 보증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와 대조를 이룬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와 상반되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본질적 특성은 정의의 독립적인 기준이란 것이 없다는 데에 있다. 무엇이 정의로운가 하는 것은 절차 자체의 결과적 산물에 의해 정의된다.

원초적 입장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들로 간주되는 개인들 사이에서 공평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롤즈는 몇가지 조건들을 부과한다. 그 첫번째 조건은 정의의 원리들을 채택할 때 당사자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무지의 베일’에 싸여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자신의 신분계급 또는 사회적 지위와 같은 자신의 사회에서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떠한 재질과 능력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았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선에 대한 자신들의 개념, 즉 그들 각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자신들의 독특한 심리적인 성향이나 버릇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한다. 롤즈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원리들을 채택함에 있어서 사회적 혹은 자연적 우연에 의해 이익을 받지도 불이익을 받지도 않으려면 이러한 정보들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초적 입장에서 부과되는 두번째 조건은 사람들의 동기에 관한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

7) *Ibid.*, p.522.

서의 당사자들은 권리, 자유, 기회, 수입, 재산, 그리고 자기존경의 사회적 토대와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에 대한 욕망을 가져야만 한다. 그들 각자는 자기자신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최대화하려는 동기를 가져야만 한다. 롤즈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기본적인 가치들을 선호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며 또 타율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가치들은 단지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들의 도덕적인 힘을 실현하며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그것이 무엇이 됐든간에)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가치들에 대한 욕망은 자연적인 욕망이나 취향과는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롤즈는 무지의 베일에 의해 가리워져 있으나 자신들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최대화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원초적 입장 속의 사람들이 정의의 원리들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이라는 조건을 부가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선택은 결코 임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일 수 없다. 그들은 단순히 동전을 던져 그 결과에 자신들의 선택을 맡길 수 없다. 선택은 자신들의 동기나 지식과 일관적이어야만 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롤즈의 구성주의의 주요 윤곽을 살펴보았다: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개념은 원초적 입장이라 불리우는 가설적인 상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의 공평함은 정의의 원리들의 공평함을 보장해 준다.

“질서 정연한 사회에 적합한 정의의 개념은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들 즉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들로 간주되는 각 개인들 사이에 공평함이 성립되는 가설적 상황 속에서 동의되어질 그러한 개념이다. 동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공평함은 동의되는 원리들의 공평함으로 전이된다. 원초적 입장은 결과되는 정의의 개념이 적절하게끔 고안된 것이다.”⁸⁾

롤즈의 구성주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해야 할 남은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롤즈가 자유와 평등을 무슨 의미로 사용했고 또 인간의 그러한 특징들이 원초적 입장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둘째로 롤즈의 객관성 개념이 그의 구성주의로부터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첫번째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칸트의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구분과 유사하게 롤즈의 자유개념에도 두가지 측면이 있다: 타당한 주장들의 자기 원천으로서의 인간의 자유와 독립으로서의 자유가 그것이다. 자기 원천으로서의 인간의 적극적인 자유는 인간의 인간성이 자신들의 정의 개념을 채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원초적 입장에 반영되어 있다. 원초적 입장 속의 인간들은 기본적인 가치들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외부적으로 주어진 가치들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를 자신들의 인간성에 따라 구성한다. 그러므로 원초적 입장 속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어

8) John Rawls, "A Well-ordered Society", in P. Laslett and J. Fishkin (eds.),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5th series, Oxford, 1979, p. 18.

떠한 주장도 정당화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독립으로서의 소극적 자유는 무지의 베일을 통한 정보의 제한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 우리의 특별한 욕망과 관심 그리고 여러가지 자연적, 역사적 우연의 결과들은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롤즈의 동등한 가치로서의 평등은 모든 당사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묘사되고 평등하게 즉 서로서로에 대해 대칭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데서 나타난다. 롤즈의 객관성 개념에 관한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이 문제는 칸트와 롤즈의 구성주의가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를 안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롤즈는 말한다:

“원초적 입장 속의 당사자들은 도덕적 사실이 무엇이냐에 대해 도덕적 사실들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동의하지는 않는다. 당사자들이 불편부당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선행하고 독립적인 도덕질서가 있다는 명확하고 왜곡되지 않은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구성주의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질서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도덕적 사실도 전체적 구성의 절차와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적 사실들은 결과되는 원리들과 동일시된다.”⁹⁾

롤즈는 다시 말한다:

“객관성을 이렇게(적절히 구성된 사회적 관점과 관련하여) 보는 것은, 정의의 원리들을 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 원리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그리고 완전히 협동하는 민주사회의 구성원들로서의 인간들이라는 우리의 인간 개념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인 원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함축한다.”¹⁰⁾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롤즈는 제일의 도덕 원리들의 내용은 이미 고정되어 있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만 이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지식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는 합리적 직관주의자의 주장을 부정한다. 그는 정의의 제일의 원리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개념으로부터 구성의 절차에 의해 나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롤즈의 이론에서는 비교적 복잡한 인간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서, 합리적 직관주의는 인식자로서의 자아에 기초한 다소 단순한 인간 개념만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롤즈에 의하면 도덕적 사실이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도덕 철학의 문제는 어떻게 아느냐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실천적인 문제이다.

이제 ‘도덕적 사실이 구성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 사실은 객관적인가?’라는 의문이 일어난다. 롤즈는 이에 대해서, “구성주의는 실제로 정의에 관한 오로지 하나의 가장 합리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과 양립하고——구성주의는 이런 의미에서의 객관주의와 양립 가능하다.”¹¹⁾ 라고 대답한다. 결론적으로, 롤즈에 의하면, 객관성은 우주적 관점에서 주어

9)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p. 568.

10) *Ibid.*, p. 554.

11) *Ibid.*, p. 570. 필자는 이 입장이 더 논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과학적 이론이 동일한 경험적 자료와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정의에 관한 합리적이고 적용가능한 두개 이상의 개념이

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구성된 사회적 관점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의 절차에 의해 구성된 틀이 바로 적절하게 구성된 사회적 관점의 한 예이다.

2. 칸트의 구성주의와 객관성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에 대한 탐구를 하기 전에 롤즈의 세가지 기본적 모형개념들과 각각 짝을 이루는 칸트의 도덕이론적 개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개념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 존재라는 칸트의 개념과 일치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개념은 정의의 상황하에서의 인간사회라고 생각되어 질 수 있는 칸트의 목적의 왕국 개념에 대한 해석이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의 개념은 칸트의 정언 명법과 자율성에 대한 절차적 해석이다.

롤즈의 구성주의가 도덕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정의의 원리와 연결시키는 이론인 것처럼,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도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 존재라는 개념을 도덕성의 원리(도덕법칙)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성의 원리는 보편법칙의 원리, 목적 그 자체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그리고 목적의 왕국의 원리와 같이 여러 정식들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실제로는 정언 명법이라는 똑같은 법칙의 여러가지 정식화일 뿐이다. 그리고 정언 명법이란 ‘당신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의욕할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더구나 칸트는 이 정언명법이나 도덕 법칙이 종합적이고 선천적인 실천적 명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의 과제는 이 종합적이고 선천적인 실천적 명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자: 정언명법이 종합적이고 실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인간과 정언 명법의 관계가 종합적이고 선천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정언 명법의 생략된 주어는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합리적 존재를 가르키기 때문이다.

롤즈는 정의의 원리가 구성의 절차를 통해서 인간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에서 정의의 원리를 선택하는 절차가 종합적이고 선천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황경식 교수가 “롤즈에 전해진 칸트의 유산”¹²⁾이란 자신의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롤즈는 칸트 철학에 있어서 인식론과 도덕론 간에는 부정합이 없으며 동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칸트가 윤리학에 있어서도 구성주의자였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¹³⁾

롤즈는 칸트의 인식론과 도덕론이 동일한 틀에 의해 짜여지고 동일한 궤도를 달리고 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평가는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12) 하영석 외 공저, 『칸트 철학과 현대 사상』, 형설출판사, pp. 533-553.

13) *Ibid.*, p. 552.

음을 보이기 위해 실험 논리학과 순수 의지론을 대비하고 있다.¹⁴⁾ 롤즈에 의하면 이론 이성이나 실천 이성이나를 막론하고 이성의 역할은 배경적 조건을 구성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험 논리에 있어서 범주가 객관적 사건의 공적 질서를 구성하듯이 순수 의지의 원칙은 공유하는 행위질서의 기초를 구성한다. 실천 이성이 개인적, 사회적인 목적 추구를 규제하는 공공적 규율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마치 이론 이성이 사물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기 위한 공공적 형식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¹⁵⁾

그러면 칸트의 인식론에서의 구성의 역할은 무엇이며, 도덕론에서도 구성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롤즈의 주장은 무엇을 뜻하는가? 록크를 위시한 경험론자들이 인식주관의 수동성에 기초한 대상중심의 모사설적 인식론을 전개할때 반해, 칸트는 이를 비판하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통해 주관적 능동적 구성에 바탕을 둔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전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칸트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모든 가능한 경험의 필수적 형식이며 범주 및 판단의 논리적 형식은 모든 경험적 지식이 전제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감각에 주어진 다양한 내용이 주관의 형식에 의해 통일됨으로써 인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우리가 대상에 있어서 인식하는 보편타당성은 칸트에 의하면 인식 주관이 대상에다 집어넣은 것이다. 인식과 대상이 일치하는 것은 주어진 대상을 반영하는 모사에 의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주관이 대상을 구성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성한다는 것은 대상을 그의 존재에 있어서 무로부터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다. 주관은 대상의 존재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오직 존재로 하여금 인식의 대상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식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칸트에 의하면 인식이 보편타당성을 가지기 위하여 주관의 구성작용도 보편타당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그 주관은 개인적인 주관일 수 없고 초개인적인 주관 즉 의식일반이라는 것이다. 이상이 대체로 인식론적인 의미에서 칸트적 구성주의의 요지라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론적 구성주의가 인식론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칸트의 실천적, 도덕적인 문제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롤즈의 주장은 무엇을 뜻하는가? 황교수는 롤즈의 이런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 1 비판에 있어서 칸트의 입론은 시공간 속에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세계에 대해서 인간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 즉 실험적 형식은 흄이 생각했듯이 심리적인 연상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상 법칙은 인과의 법칙으로서 그것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어떤 시공적인 체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정신이 경험세계를 만날 때 이미 무장한 이성의 규칙(인과의 규칙)을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정신의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2 비판도 동일한 틀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14) J. Rawls, Lecture V: Structure of Desire, Howison Lecture given at Berkeley, May 1, 1979, p.2. 황교수의 논문에서 재인용.

15) *Ibid.*, p.6.

칸트에 있어서 순수 의지의 원칙은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이며 이는 정언 명법의 절차를 통해 인간생활에 적합하게 적용된다. 연상법칙의 심리적 작용이 대상 인식의 틀을 세울 수 없듯이 자연적 경향성이나 개인간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특정원리가 행위의 정당한 질서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롤즈에 의하면 이러한 원리의 적용은 언제나 현실적 욕구의 상대적 강도에 의해 좌우되는 까닭에 특정한 조정 원리는 사회적 역사적 여건의 우연성에 의존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칸트가 윤리학에 있어서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기도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¹⁶⁾

칸트는 분명 그의 도덕론에서도 구성의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롤즈가 해석하는 바의 그런 목적으로, 즉 도덕 원리들에 주관성 내지 사회성, 역사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칸트가 그의 도덕론에 구성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칸트와 롤즈는 구성의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인다. 롤즈의 구성주의가 인간의 개념 즉 주관성을 바탕으로 정의의 제일 원리들 그 자체의 구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비해서,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는 인간의 개념 즉 주관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주어진 도덕법칙이 어떻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 즉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이 왜 의무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칸트에 있어서 정언 명법으로 표현되는 도덕 법칙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이성의 사실이다.

“도덕 법칙은 순수이성의 명증적으로 확실한 사실로서 즉 우리가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주어진다.”¹⁷⁾

이것은 칸트의 비판적 도덕 철학이 두가지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우리가 도덕법칙을 알 수 있는가’와 어떻게 주어진 법칙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의무이며, 또 타당인가’가 그것이다. 칸트는 앞의 문제에 대한 탐구를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며, 뒤의 문제에 대한 탐구를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첫번째 것은 분석적인 합리적 연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두번째 것은 종합적이고 선천적인 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칸트는 이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여러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 중 두 부분만 인용해 보면 이렇다:

“각 선의지의 준칙이 자기 자신을 보편적 법칙이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가 스스로 그 자신에 부과하는 유일한 법칙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실천적인 선천적 종합명제가 가능한가 그리고 왜 그것이 필연적인가 하는 것은 이미 ‘도덕 형이상학’의 범위 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다.”¹⁸⁾

“우리는 적어도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정확히 진정한 원리를 정식화할 수 있었던 한,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본 셈이다. 그러나 그 원칙의 타당성과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실천적 필연성에 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진척도 없었다. 왜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우리의 격률의 타당성이 우리 행위를

16) “롤즈에 전해진 칸트의 유산,” pp. 552-553.

17) Immanuel Kant,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ranslated by L.W. Beck, Indianapolis, p. 48.

18) Immanuel Kant, *Groundwork of the Metaphysic of Morals*, translated by H.J. Paton, New York, 1956, p. 444.

제약하는 조건이 되어야만 하는가?”¹⁹⁾

도덕법칙의 분석적 연역과 주어진 법칙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선천적인 구성이라는 이중적 전략을 칸트가 채택하고 있음을 간과 내지 무시하고 틀즈는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를 도덕법칙 그 자체의 구성을 수행하는 이론이라고 왜곡 해석한다. 또 그에 따라 도덕적 객관성도 단지 구성된 것이라고 잘못 해석한다.

그렇다면 분석적 연역의 방법과 종합적이고 선천적인 구성과의 명확한 차이점은 무엇일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석적 연역의 방법은 도덕법칙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우리가 분석적 연역의 방법에 의해 도덕법칙을 어떻게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까?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법칙의 원리로서 성립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도덕법칙은 정언 명법으로서의 형식적 측면과 ‘주관적 준칙을 보편법칙이 되게 함’이라는 내용적 측면의 두가지 측면이 있다. 칸트에 의하면, 정언명법으로서의 도덕법칙의 형식적 특징은 선의지 개념의 분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선의지는 의무인 까닭에 작용하는 의지이지 단순히 의무와 일치하는 의지는 아니다.” 그리고 “단지 정언 명법만이 행위에 의해 달성되어질 어떤 또 다른 목적에 기초하지도, 목적에 의해 조건지위지지도 않은 행위를 하도록 명하므로” 의무인 까닭에 하는 행위는 정언 명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언 명법성의 선의지 개념으로부터의 연역은 분석적인 합리적 연역의 방법을 통해 이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관적 준칙의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적합성이라는 도덕법칙의 내용적인 특성은 감각 세계로부터 모든 경험적 요소를 제거함에 의해서 얻어진다. 칸트에 의하면, 도덕법칙은 초감각적인 자연과 오성의 순수세계의 근본법칙이다. 그리고 도덕법칙의 대응물은 감각세계의 법칙과 충돌함이 없이 감각 세계 안에 존재한다. 칸트는 순수한 초감각적 세계를 *natura archetypa*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오로지 이성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 그리고 감각의 세계는 *natura ectypa*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감각의 세계가 의지의 결정근거로서의 *natura archetypa*의 이념의 가능한 결과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도덕법칙은 감각세계에... 감각세계의 구조와 충돌함이 없이 예지적 세계의 형식, 즉 초감각적 세계의 형식을 제공한다”²⁰⁾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점은 “예지적 세계는 감각 세계의 근거를 포함하고 따라서 감각 세계의 법칙들의 근거까지 포함한다”²¹⁾는 구절에서 다시 드러나고 있다.

도덕법칙이 초감각적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이며 그 대응물이 감각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한, 도덕법칙이 이성에 의해서 감각 세계로부터 모든 경험적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제거의 방법이 분석적인 합리적 연역의 방

19) *Ibid.*, p. 449.

20)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p. 44.

21)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p. 453.

법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분석적 연역의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도덕법칙을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순수한 실천법칙들을 순수한 이론적 원리들을 아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알 수 있다. 즉 이성이 우리에게 순수실천법칙들을 명시할 때 지니는 필연성과 이성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 모든 경험적인 제약을 버리는 것, 이 두가지에 우리가 주목함으로써 실천법칙들을 알 수 있다.”²²⁾

이제 도덕법칙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두가지 결과들을 한가지 정식으로 결합시키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 정식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는 참된 도덕법칙이라고 무엇이 보장하는가? 우리의 의문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이 보편적 법칙들이 되도록 의욕하는 자신들의 주관적 격률들에 따라 항상 그들의 행위를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필연적인 법칙인가?”²³⁾ 이것은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의 물음인데, 칸트에 따르면 이 문제는 분석적 연역에 의해서는 풀 수 없으며 종합적이고 선천적인 구성에 의해서만 풀 수 있다.

종합적이고 선천적인 구성에 관해 칸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도덕성의 원리는 즉 ‘절대적 선의지는 그것의 준칙이 보편법칙으로 간주되는 자기자신을 그 내용으로서 언제나 포함할 수 있는 의지이다’라는 명제는 하나의 종합명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준칙의 이러한 특성을 절대적 선의지의 개념을 분석해서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종합적 명제는 두개의 인식이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셋째 인식과 결합되어야만 가능하다. 자유의 적극적 개념이 이 셋째 인식을 제공한다.”²⁴⁾

칸트는 더욱 명확히 언급한다.

“어떤 관점에서는 나 자신을 감각 세계에 속하는 존재라고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예지자로서 나는 예지계의 법칙에—즉 자유의 이념 중에 예지계의 법칙을 포함하고 있는 이성에 복종하는 것으로, 따라서 의지의 자율에 복종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예지계의 법칙을 나에게 대한 명법으로 보고, 이 원칙에 합치하는 행위를 의무로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계의 한 성원으로 삼기 때문에 경언적 명법들이 가능한 것이다.”²⁵⁾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적 존재들이 단지 모든 것이 자연적인 인과율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현상계의 구성원들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세계에서는 모든 합리적 존재들이 단지 욕망과 취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분석적인 합리적 연역의 방법에 의해 주어진 도덕법칙은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 더구나, 이 세계에서는 이성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 의무라는 개념이 가능하다면, 합리적 존재들의 의무는 욕망과 취향에 충실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도덕적 법칙이

22)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p.29.

23) *Groundwork of the Metaphysic of Morals*, p.426.

24) *Ibid.*, p.447.

25) *Ibid.*, p.453-454.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합리적 존재는 인과율이 지배하는 현상계의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것이어야만 한다.

이제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합리적 존재들이 현상계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현상계의 원인이며 근거인 예지계의 구성원이기도 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합리적 존재는 이 세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연역에 의해 주어진 어떤 도덕법칙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가능해진다. 주관적 준칙의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적합성을 내용으로 가지는 바로 그 도덕법칙이 어떻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그 도덕법칙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도덕법칙은 예지계의 법칙이어야만 한다. 이것은 곧 주관적 준칙의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적합성의 원리가 이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성의 순수세계는 예지계에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도덕법칙은 이성적 존재가 자기자신을 예지계에 속한다고 간주할 때에만, 또 오직 그때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그리고 감각세계에 있는 이성적인 존재를 예지계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자유의 이념이다.

자유 의 이념을 매개로 하여 감각 세계에 있는 인간에게 예지계의 특성을 덧붙이는 것이 종합적이고 선천적인 구성의 근거이다. 칸트는 말한다.

“이처럼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계의 한 성원으로 삼기 때문에 정언적 명법들이 가능한 것이다. 내가 오로지 예지계의 성원이기만 하다면, 나의 모든 행위는 의지의 자율에 항상 일치하겠지만, 나는 동시에 나를 감각계의 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이 자율에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된다. 이 정언적 당위는 선천적 종합 명제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감성적 욕망에 의해 촉발되는 나의 의지에 동일한 의지이기는 하지만 예지계에 속하는 순수한 그리고 그 자체로서 실천적인 의지의 이념이 보태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감성적 욕망에 의해 촉발된 의지의 최상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감각계의 직관에 오성의 개념들이 보태지고 이럼으로써 자연에 대한 모든 인식의 기초가 되는 선천적 종합 명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과 대체로 같다.”²⁶⁾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도덕법칙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덕법칙(정언명법)이 종합적이고 선천적인 실천적 명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다. 구체적으로 말해 도덕적 법칙은 합리적 인간이 자유의 이념을 매개로 자기자신을 예지계에 속한다고 간주하는 한에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의 이념은 이성적 존재를 어떻게 예지계로 이끌 수 있는가? 이것이 칸트의 선형적 자아에 대한 논변이다. 칸트의 선형적 자아에 대한 논변은 자기지식으로부터의 논변과 자유로부터의 논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자기지식으로부터의 논변은 왜 우리가 감각적 존재와 구분되는 이성을 가진 합리적 존재가 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자유로부터의 논변은 이성을 가진 합리적 존재가 왜 예지계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설명한다.

자기지식으로부터의 논변은 내가 단지 내감이나 내성만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성을 할 때, 내가 볼 수 있

26) *Ibid.*, p. 454.

는 것은 내 감각이 전해준 것들 뿐이다. 나는 나 자신을 단지 경험의 대상으로서 즉 이러저러한 욕망, 취향, 목적, 성향 등등을 가진 사람으로서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자기지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현상의 흐름 배후로 그 현상이 무엇의 현상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나를 데려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내감에 의해 자기 자신과 접하는 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주장할 수 없다.²⁷⁾” 내성이나 ‘내감’ 만으로는 이러한 현상 배후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지식도 획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추정해 보아야 한다. 단순한 현상들로 이루어진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특징을 넘어서, 인간은 그 근거가 되는 다른 어떤 것, 즉 자아가 있음을 가정해야만 한다.”²⁸⁾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안다는 조건으로서 전제하여야만 하는 어떤 것은 주체 그 자체이다. 이 주체는 어떤 특별한 경험에 선행하여 배후에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다양한 지각들을 통일시키고 그것들을 하나의 의식 속으로 묶는다. 이것은 통일의 원리를 제공하는데, 이 원리가 없다면 우리의 자기지식은 불연속적이고 항상 변하는 표상들의 흐름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이 원리를 경험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나, 만약 우리가 자기지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의 타당성을 가정하여야만 한다.

내가 경험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체라고 나 자신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사실의 발견은 내 행위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알아내는 두가지 방법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그것은 자유로부터의 논변으로 이끈다. 나의 행위들은 모든 다른 대상들의 운동이 자연법칙과,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험의 대상으로서의 나는 감각 세계에 속한다. 이와 반대로 선형적 자아로서의 나는 자연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이고(소극적 의미로서의 자유) 나의 이성에 의해 주어진 법칙에 따라 행위할 수 있기 때문에(적극적 의미로서의 자유) 경험의 주체로서의 나는 예지적이고 초감각적인 세계에 속한다.

이런 두번째 관점에서만 나는 나 자신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만약 완전히 경험적 존재라면, 모든 의지 작용은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에 의해 조건지워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모든 선택은 어떤 목표에 의해 지배받는 타율적인 선택이 되고 말 것이다. 나의 의지는 결코 제일 원인이 될 수 없고 어떤 선행하는 원인의 결과일 뿐이며, 어떤 자극이나 취향의 도구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단순한 경험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

27) *Ibid.*, p. 451.

28) *Ibid.*

는 우리 스스로를 예지계의 구성원으로 전입시키고 또, 의지의 자율성을 인식하게 된다.”²⁹⁾

지금까지 우리는 칸트의 도덕철학이 도덕형이상학과 실천이성비판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았다. 도덕형이상학의 임무는 분석적인 합리적 연역의 방법을 통해 도덕법칙을 찾는 것이며 실천이성 비판의 임무는 주어진 법칙이 왜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이고 선천적인 구성의 방법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 칸트가 이러한 이중적인 전략을 채택한 것을 간과 내지 무시하고, 롤즈는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가 도덕법칙 자체의 구성을 수행하는 이론이라고 왜곡되게 해석했으며 따라서, 도덕적 객관성을 단순히 구성된 것이라고 잘못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구성은 정의의 제일 원리들을 구성하기 위한 장치인데 반해, 칸트의 정언명법의 구성은 주어진 도덕성의 원리가 왜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다시 말해, 롤즈와는 달리 칸트는 독립적인 도덕법칙이 존재하며, 또 그 도덕법칙이 우리에게 명증적이고 선천적인 사실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으며, 칸트가 한 구성작업은 단지 왜 그러한 주어진 도덕법칙이 우리에게 타당한가 하는데에 대한 형이상학적 정당화 작업이었을 뿐인 것이다.

29) *Ibid.*, p. 453.